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3년 2월 22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440-4301 • 담당자 박혜윤 ☎440-430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수소모빌리티 전환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이끈다

- 22일, 액화수소생산과 수소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액화수소포럼’ 개최 -
- 민간 최초로 출고된 수소고상(전세·광역)버스 선보이기도 -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확산과 수소선도 도시 도약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핵심지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액화수소산업 발전과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3 인천 액화수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수소모빌리티, 액화수소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션으로 채워졌다.

우선 식전행사로 수소고상버스 시승식이 개최됐으며, 인천시와 정부 부처, 각 기업들은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과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의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전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최종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지영 SK플러그하이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포럼 준비위원장인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의 개회로 시작된 각 부문별 세션에서는 정부정책과 산업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액화수소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액화수소 생산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수소 성장을 견인할 최적화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며, “탄탄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 전국 최초 민간 수소고상버스, 인천에서 첫 시동!**

포럼 진행에 앞서, 인천시, 환경부, 국토부, SK, 현대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도입해 인천에서 운행을 시작한 수소고상버스를 시승하며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돌아봤다.

수소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탑승감이 편안하고, 천연가스(CNG) 버스 한 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경우 기존 버스 대비 연간 약 7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인천에는 올해 총 4대의 수소고상버스가 도입됐다. 지난달 관내 운수사인 신백승여행사가 국내에서는 민간 최초로 수소고상버스 1대를 도

입해, 포스코건설의 통근버스(전세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어 이달부터는 마니교통이 수소고상버스 3대를 도입해 인천터미널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400번에 배정해 운행 중이다.

#### □ 인천시, 대한민국 수소대중교통체계를 선도한다.

포럼 식전행사로 진행된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대한민국 수소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가까게 됐다.

인천이 수소버스 선도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와 환경부, 국토부는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고, ▲SK E&S에서는 액화수소의 생산·공급은 물론 충전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시 계획에 따라 수소버스를 생산·공급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 정부는 수소경제 3대 성장 전략 중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형 모빌리티 보급의 확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시는 수소대중교통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버스를 청정수소 버스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올 연말까지 수소버스 200대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700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소버스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충전소가 현

재 6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충되는 만큼, 시는 이러한 대규모 전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 2023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구 분	운영 중(총 6개소)	구축 중(총 8개소)
인천시	인천그린수소충전소(21) 태양수소충전소(21)	화물차 수소충전소 남동농협 수소충전소
민 간	H인천수소충전소(19) 인천공항 T1(20), 인천공항T2(21) 환경산업연구단지(22)	연희동 충전소, 송도하수처리장 왕길동 충전소, 신백승여행사 세운산업, 검단산단차고지

특히 오는 하반기 서구 원창동에 액화수소생산 플랜트가 준공돼 대규모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수소대중교통 체계 구축기반은 보다 더 속도감있고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 수소버스 전국 확산의 매개 될 것

인천시는 이날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SK 플러그하이버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과 수소모빌리티 전환 촉진 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 도 체결했다.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구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와 공사, SK E&S는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 했고, 지난 1월 국토부 공모사업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30억 원(국비70억, 시비30억, 민간30억) 규모로 구축되는 복합기지는 영종도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은 물론, 전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상시 진입하는 버스 450대를 시작으로, 수소모빌리티 대전환의 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상당

한 의미가 있다.

#### □ 정부·지자체·산업체 및 유관기관, 수소(H2)를 말하다

이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그리고 액화수소사업과 수소모빌리티 유관·민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인천 액화수소 포럼’이 열렸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수소모빌리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자동차, SK E&S에서 액화수소사업과 수소상용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개발·기술 현황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도하이젠, 신백승여행사, 제로쿨투어에서 수소상용차 실증사례 발표가 진행됐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지자체, 산업계, 유관기관 간 액화수소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인천 액화수소포럼을 계기로 수소생산과 활용에 이르는 수소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특히 수소경제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수소모빌리티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산업계,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